

# 프랑스에 일어난 대약살



로마 가톨릭에 의해 화형(火刑) 당하고 있는 개신교 성도들

## 2. 불에 타 순교한 로버트 오기에르 가족 이야기

이것은 로버트 오기에르(Robert Oquier)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보디콘과 마르틴의 이야기이다. 1556년 3월 6일 토요일 밤 10시경 리슬 시(市) 시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신교도들이 비밀히 모여 예배드린다는 집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로버트 오기에르의 집에 멈춰 섰다. 그러나 거기에도 그들이 찾는 비밀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데 로버트의 큰 아들 보디콘이 그 때 마침 몇몇 형제들과 함께 다른 장소에서 비밀히 성경을 읽으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의 동생 마르틴이 창문으로 형이 온 것을 보고 지금 수색대들이 집에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나 형 보디콘은 동생이 자기를 잘못 알아보고 그런 줄 알고 “나야 나! 문 열어!”라고 했다. 그러자 수색대들은 문을 열고 형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형이 집 안으로 들어

오자 군인들이 말했다. “아! 선생이시군 잘 만났어!” 순간 보디콘은 흠칫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친구들이여! 당신들도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자 시장이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 모두를 황제의 이름으로 체포한다!” 그 말과 함께 군인들은 달려들어 온 가족을 묶었다. 그리고 끌고 가 감옥에 가두었다.

며칠 뒤 로버트 가족은 총독 앞으로 끌려나왔다. 총독은 먼저 로버트에게 말했다. “너는 절대 미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 게다가 너는 집에서 비밀 집회를 열고 거룩한 교회법에 반대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황제의 법률에도 위반 되는 것이다.”

그러자 로버트가 대답했다. “먼저 당신은 내가 미사에 나가지 않는 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그의 보혈과 그의 희생이 거기서 완전히 무시되고 발에 짓밟혀지기 때문에 가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어떤 선지자나 사도들이 미사에 대해 언급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만찬을 세우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지만 제사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신다 해도 미사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사는 단순히 인간이 고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소 제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우리는 나쁜 일을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나는 사실 황제께서 금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하셨기 때문에 황제에게 순종하려고 그리스도께 불순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재판관 중 한 사람이 그러면 너희가 모여 무얼 했느냐고 물었다. 이 말에 만아들 보디콘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먼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

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분별되고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황제를 위해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스려지도록 기도합니다.”

재판장은 집에 모였던 사람들 이름을 말하라고 했다. 할 수 없다고 하자 말할 때까지 고문을 하라고 명령했다. 온갖 고문으로 닳새가 지난 뒤 그들은 다시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또 다시 여러 가지 심문을 한 후 재판장은 우리가 공정한 판결을 하면 우리 뜻에 따르겠느냐고 물었다. 아버지와 큰 아들은 신중히 생각한 뒤에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동생 마르틴은 자기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아버지와 그의 큰 아들은 재가 되도록 불살라 버리라는 화형(火刑)을 선고하고 작은 아들과 그의 어머니는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아버지와 큰 아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순교자의 명단에 오르는 영광을 주셨다고 기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재판관 중 한사람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군인들이 그들을 화형 시킬 준비를 하는 동안 신부들이 아버지와 큰 아들에게 다가 왔다. 그 중 하나가 너희들은 죽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한 이 몸을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영접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부 중 하나가 그들을 돌이켜 보려고 애를 썼다. “로버트 당신은 노인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나는 당신께 간청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는 당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불쌍한 자여! 당신은 감히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자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도적질 하려고 드시십니까? 당신 말은 마치 내가 당신 말을 들으면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될 것 같이 들립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뿐입니다. 그분은 나를 곧 이 비참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분의 말을 듣도록 명령하신 분은 단 한 분 그리스도뿐이오 나는 그 분 이외의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신부가 그에게 네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권고했다. 아버지는 또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는군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그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소망 때문에 기꺼이 내 몸을 불에 던질 때에 내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볼 것이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소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나를 그의 왕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죽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닥쳐라! 이 개 같은 녀석!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가치조차 없다. 너와 네 아들은 둘 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그의 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를 가만 놓아두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그는 노인이시고 그의 몸은 노쇠하셨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가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데 방해하지 마시오.”

화형장으로 가는 중에 큰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무로 조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거기에 기록된 그의 거룩한 말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을 호위하며 사형 집행장으로 가고 있는 호위병들 가운데서 마치 궁전을 향해 가고 있는 왕자나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웃으며 화형장으로 걸어갔다.

군인들은 보디콘과 그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 세워진 나무 기둥에 온 몸을 묶었다. 나무에 묶인 보디콘이 시편 16편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부가 귀를 막으며 외쳤다. “나의 주인이시여! 저 사악한 이단자가 사람들을 꼬이려고 잘못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디콘이 대답했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당신은 선지자 다윗이 잘못된 시편을 썼다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옆에 함께 묶여 있는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힘내세요. 죄악의 상태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짝막한 믿음 소

리를 간간이 냈다. “오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우리 몸의 희생을 받아주소소서.”

그들은 곧 불길에 휩싸여 고통 속에 빠졌고 큰 아들은 눈을 하늘로 향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세요. 아버지! 하늘이 열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으니까요.” 짙에 붙여진 불은 점점 타올라 나무로 옮겨졌다. 불길은 더욱 더 뜨거워지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의 손에 우리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주님 품안에 잠들었다.

그러자 많은 가톨릭교도들이 이제 남은 작은 아들 마르틴과 그의 어머니가 가져 있는 감방으로 몰려와 온갖 헐박과 회유로 그들의 믿음을 돌이키려고 했다. 그러자 가련한 어머니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믿음을 저버렸다. 이것을 본 원수들은 뛰며 기뻐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함께 숨어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은 당황했다.

그러나 주님은 애통하며 가슴 아파 하는 작은 무리들을 버리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신부가 믿음을 배반한 어머니를 앞세워 작은 아들마저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감옥에 있는 마르틴을 찾아왔다. 마르틴은 그의 어머니가 믿음을 배반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설득하려고 온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했다. “오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를 구원 해 주신 분을 부인하셨나요? 아! 하나님 제가 살아서 이런 꼴을 보다니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배신을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주 안에서 새롭게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함께 이렇게 울부짖었다. “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이 비참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복된 아들의 피로써 저의 허물을 덮어 주소서 주님! 위로부터 내린 힘으로 저의 첫 신앙고백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해 주소서.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 안에 굳게 거할 수 있게 붙들어 주소소서.”

그러나 잠시 후 사탄이 다시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머니는 즉시 그것을 알고 증오심을 가지고 사탄에게 말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부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내 첫 믿음의 고백에 다시 서 있다. 내가 그것을 잉크로 사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피로 그것을 인치겠다.” 그때부터 잠간 흔들렸던 연약한 어머니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게 되었다. 그러자 한 기회주의자가 마르틴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젊은이여!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는 네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은 내가 믿은 것처럼 믿고 있지 않다. 나는 그래도 그들이 모두 구원 받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했다. “선생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에 있는지 아닌지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를 당신의 신부와 수도사들의 교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한분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분만을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친구약 성경 말씀만을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곧 아들 마르틴과 함께 묶여 사형장으로 끌려 나갔다. 나무에 묶이면서 어머니는 모든 구경꾼들이 듣도록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살인이나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이 믿음 때문에 고난 받고 죽임 당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했다.

불길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길의 뜨거움도 그들의 그 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태울 수 없었다. 그들은 두 손을 하늘로 향한 채 거룩한 한 음성으로 말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한 날 한 시에 주님 품에 잠들었다.<sup>(\*)</sup> 출처 / 기독교순교사화(존 폭스 원저, 머리 킹 편저, 생명의말씀사) < 다음에 계속 >